

강릉 갈바리의원 (호스피스)

강릉시 흥제동 5-2 T. 0391) 644-3613



1. 역사

▶ 1963년 11월 23일

한국 천주교회 춘천 교구장 구 토마 주교님의 초청으로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호주관구 호주수녀 2명(Sr. Mary Evangelita(Margaret) Herdigan & Sr. Mary christine Astell)이 한국에 도착하여 강릉 갈바리 의원 건축을 시작함.

▶ 1964년 9월 1일

호주 수녀 2명(Sr. Mary Teresita de Dassel & Sr. Mary Mark(Cecilia Mulchare)이 한국 선교에 동참하여 강릉에서 합류함.

▶ 1964년 9월 14일

갈바리의원 건물이 완공되어 수녀원 축성 및 외국신부님(Fr. James Duggan S. S. C.)께서 원목 신부로 상주하게 됨.

▶ 1965년 3월 15일

호주 자원 봉사 의사 1명(Dr. Paul Maher) 호주 수녀 4명(간호사, 방사선과 기사, 검사실 기사, 약사)들과 직원 22명으로 갈바리의원이 개원되어 수도회의 영성인 갈바리 산상의 예수님 십자가 발치 아래서 계시는 성모 마리아의 모성에 일치된 정신으로 임종자들의 영적 구원을 위한 주님의 치유 현존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외과 외래 진료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강릉에는 병원이 없었던 시기였으므로 모든 질병의 남·녀·노소 환자들이 다 모여 왔다. 특히 방랑 및 무연고자 환자들을 위한 외국 수녀님들의 무조건적 사랑에 찬 실천으로 근처 여관방을 이용하여 환자 간호와 숙식을 제공하는 등 간헐적인 호스피스 간호를 실시하였다.

▶ 1978년 8월 10일

점차로 의원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 본당 신자들과 함께 의원 주변의 가정 방문 진료 및 간호를 출발점으로 의원내 요셉의 집 - 임종자들을 위한 방 2개 - 을 마련하여 무연고 환자나 가정에서 임종할 수 없는 여건의 어려운 환자들의 간호 및 임종을 지키면서 호스피스 활동을 실시하였다.

▶ 1981년 1월 21일

임종자들을 위한 말기 간호와 무연고자들을 위한 단기간 입원 치료를 위해 의원 2층에 2인용 병실 7개, 14병상을 마련하여 24시간 지속적인 호스피스 입원실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가정 방문 간호(방문 간호사, 사목 수녀, 운전 기사, 자원 봉사자)를 실시하였다.

▶ 1990년 1월 19일

가정 방문 호스피스에 주력하여 강릉 시내 및 명주군을 거점으로 방문 호스피스를 활성화 시

키면서 무료 환자들의 장기 입원화 및 재정적 어려움으로 2층 호스피스 입원실을 정리함.

▶ 1995년 6월 9일

강릉 지역 내 호스피스 교육 후 갈바리 의원(호스피스)을 위한 후원회가 조직되고 의원내 2층 병실을 새로이 단장하여 후원자, 자원 봉사자, 원목자, 의료팀들이 하나가 되어 임종자들과 함께 하는 사랑에 찬 동반자의 터를 마련하여 입원실 운영 및 가정 방문을 통해 호스피스 활동에 주력함.

▶ 1999년 현재

입원실 운영, 가정 방문, 외래 진료, 타병원 원목 활동과 함께 임종자들의 영적 구원을 위한 기도회, 심리 및 원목의 전화 상담 등을 주관하면서 외로이 죽어 가는 이가 없도록 '내일이면 너 무 늦을, 오늘 임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인적인 간호를 실시함.

2. 팀 구성 및 재정

현재 의사 1명, 사목 수녀 1명, 간호사 5명, 간호 조무사 2명, 약사 1명, 영양사 1명, 운전 기사 1명, 자원 봉사자(간호 보조, 주방, 세탁, 청소, 시설 보수 및 수리, 기도 및 대화, 차량 봉사, 후원회 관리 등의 분야) 약 50여 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정면에서는 환자로부터의 진료비, 후원회비(교구청, 김남호 사회복지재단, 개인별, 단체별), 바자회 수익금, 의원내 매점 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있음.

3. 호스피스 간호 및 환자 현황

“갈바리 산상의 예수님 십자가 발치에서 계시는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마음으로 임종자와 그 가족들을 돌본다.”의 기본 이념을 토대로 증상 완화 및 통증 조절을 위한 호스피스 및 완화 의학적인 치료로 주로 구강이나 항문을 통한 시술과 기본 간호를 통한 전인적 간호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정과 같은 평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시간과 여유를 갖게 해 주며, 무연고의 환자들에게는 혼자가 아니라 호스피스팀에 의해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종 시에는 전 직원들과 수녀와 봉사자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해 주고, 임종 후에는 장례 미사나 장례식에 참석하여 묘지나 화장터에도 함께 동반해주며, 가족이 없는 분들의 자식이 되어 봉사자들과 같이 유골을 산, 강물, 바다에 뿌려 주기도 한다. 임종후에는 가정 방문 및 전화 연락을 통해 사별 관리도 실시한다. 입·퇴원은 언제라도 자유롭게, 환자 방문도 수시로 자유롭게 실시하며, 외출이나 외박을 필요에 따라 실시하므로 미처 못다한 정리 등을 다 할 수 있게끔 배려한다.

강릉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무연고 암 환자나 노환, 마비환자들도 유기한적으로 입원 간호를 받고 있으며, 종교와 무관하게 보살피고 있다.

지역 사회의 필요 요청에 따라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하며, 중앙의 호스피스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받은 후 나눔과 회의를 통해 서로를 지지한다.

98년도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입원 환자 : 38명, 사망 환자 : 22명, 재원 환자 : 9명,

가정방문 호스피스 등록 환자 : 63명, 방문 횟수 : 416회, 전화 상담 : 175회, 사망 환자 : 35명

4. 마침

시작, 그리고, 중단, 그 후 다시 시작이라는 굴곡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언제나 다가오는 느낌들, 무수한 질문과 함께 오보되는 사실 아닌 사실들을 접하면서..... 그래도 대부분 우리네 손길과 마음을 스쳐간 환자들과 가족들이 다른 곳에서는 느끼지 못하였던 편안함, 고요함, 깨끗함, 그리고 따스함의 여유로움을 맛보았음을 자주 들려 주며,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 보낸 가족들은 이곳에서 간호 받았음을 감사해하면서 스스로 하느님을 찾아 교회로 나가고 있음을 알려 줄 때..... 또한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들의 가정 방문에 고마워하며 주위의 이웃들이 농담 반 진담으로 자신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에 방문하여 간호해 줄 것을 미리 부탁하기도..... 그러나 어떤 때에는 푸른 베일을 쓴 수녀가,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을 방문 해 오면 괜히 자신의 살아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미리 짐작했었다는 후담을 들려 줄 때.....

이 모든 것들을 갈바리 산상의 성모 마리아에게 고스란히 드린다. 이상으로 가정 방문 호스피스가 더욱 더 바빠지고, 가정과 같은 친숙한 분위기를 가져다 주는 갈바리 호스피스 병실에서 다시 한 번 돌아오지 않을 중요한 시간, 영생을 위한 마지막 준비, 삶의 종착역 정거장의 창문을 통해 아름답게 핀 오월의 장미를, 노란 은행잎이 무수히 떨어지는 십일월의 늦가을 햇살을 아쉬워하나, 이제는 떠나야만 하는 한 영혼의 안타까움에 갈바리 산상의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작은 자 되어' 그들 곁에 함께 하여 아무도 홀로, 외로이 죽어가는 이가 없도록, 예수님의 성혈을 통한 성령의 은총과 하느님의 자비가 그 순간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평범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보살핌으로 화해와 용서가 넘치는 시간들, 두렵고 힘들어 숨쉬기가 어려우나 누군가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고자 따뜻한 손을 건네는 듯 한 희망이 있기에, 이제는 남아 있는 이들에게 마음의 작별을 고하며 큰 숨 한 번 다시 내쉬어 이승의 산소 가득히 담아 영원히 돌아 올 수 없는 긴 여정을 향해 차가워지는 육신의 걸 옷을 벗어버리는 자연스럽고도 편안한 한 인간의 새로운 시작의 경이로움에 함께 하는 진정한 HOSPICE CARE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청담 본당 가정 호스피스팀 활동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63-19 T. 542-2345

저희 청담동 본당에서는 지난 3월에 본당 가정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는 말기 환자는 고통이 심해지는데 입원하기가 어렵고 또 입원을 해서도 종합 병원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가 어려우며 오랜 병고로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많은 환자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면서 가족의 따뜻한 간호를 받기를 원하는데 일부 종합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지만 우리 나라는 말기 환자를 수용할 호스피스 시설이 부족하고 따라서 호스피스 자원 봉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수용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 성모병원 호스피스과에서는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본당 가정 호스피스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봉사자 육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당 가정 호스피스는 구역내의 환자를 그 지역 주민들이 돌봄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복음 전파에도 작은 몫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강남성모병원에서 호스피스 1차 교육을 수료한 후 본당팀을 구성하여 한달 동안 기본 신체 간호, 말기 환자와의 의사 소통, 호스피스 봉사자의 영성, 환자와의 대화 등에 대해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의 과장 수녀님과 간호사님 및 병원 실무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받고 직접 호스피스 병동 입원환자들을 만나 수 차례 실습을 거친 후 3월 11일부터 이틀간 2차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한 달이 넘는 교육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과 실습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팀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오신 두 봉사자가 파견되어 교육을 이수한 네 명과 합류하여 모두 6명으로 구성되었고, 3명씩 한 팀이 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월 20일 본당에서 주임신부님의 강복을 받은 후 첫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대상자를 찾기 위해 봉성체하는 환자들을 방문하여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찾았고, 주보에 호스피스팀을 소개하는 홍보도 했습니다. 본당 가정 호스피스팀의 대상은 오랜 기간 병석에 계시던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긴 투병 생활에 지친 환자와 가족들은 처음에는 의례적인 방문에 그칠 것을 우려해 거절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을 설득하고 지속적인 방문을 통하여 환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다보니 처음에 마음을 닫았던 분들도 차츰 마음을 열고 우리들의 방문을 기다리며 고마워 하신답니다.

우리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께는 일주일에 두 번씩 방문 때마다 목욕을 시켜드리고 맞사지도 해드리고 함께 기도를 바치기도 합니다. 또 저희가 방문하면 세시간 가량은 간병하시던 가족은 외출을 할 수도 있고 마음놓고 쉴 수도 있습니다. 집에 계시던 환자가 다른 기관이나 병원으로 거처를 옮길 경우 그곳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함께 하기도 하며, 방문할 때 마다 환자의 상



태를 늘 기록하면서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임종 시는 물론이고 사후에도 입관 및 장례 미사, 장지까지 가족과 함께 하고 사별 후에도 방문하여 함께 고인을 위한 연도도 바치고 사별 가족을 위로하는 일도 하

지요. 그동안 저희와 함께 했던 분들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평안한 임종을 지켜볼 때, 또 사별 가족이 신앙 안에서 슬픔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활동을 시작한 지도 교육을 마친 3월부터 벌써 녀달이 되었네요. 처음 일을 시작 할 때는 많이 두렵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팀장(강남성모병원에서 오랫동안 호스피스 봉사 활동을 하신 분)을 중심으로 서로의 우애를 다지며, 활동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채우면서 열심히 활동하다보니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과 과장 수녀님께서 미팅과 월 교육을 통해 저희를 지도해 주시기도 하고, 봉사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저희는 수녀님께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데, 수녀님께서는 늘 저희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주십니다. 또 저희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좀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식과 전문을 넓히기도 합니다. 늘 지도해 주시는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과 과장수녀님, 그리고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청담동 성당의 주임 신부님과 원장 수녀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본당 가정 호스피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호스피스 활동은 우리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고통받는 환자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계속 주변에서 환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환자분들은 아주 작은 손길과 소박한 미소에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가정 호스피스 봉사자의 수가 아주 적지요. 그래서 9월부터 실시하는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봉사자 수가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외롭게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보람도 함께 느끼면서 생활하기를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성바오로복지병원 호스피스 개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849-1 T. 0652) 245-5119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대구 관구)에서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불쌍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기 위하여 지난 4월 26일 사랑의 보금자리인 성바오로복지 병원(원장 : 최명성 모니카 수녀)을 개원하였다.

이 병원은 단순히 육체적인 병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과 한 가족이 되어 하느님의 사랑으로 영혼의 상처도 함께 어루만져 주고 있다.

총 51개의 병상(6인실 4개, 4인실 4개, 2인실 3개, 독실 5개)을 갖춘 입원실과 가능한 가정과 같은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해 주기 위해 정원과 휴게실, 욕실, 주방, 가족들을 위한 침실, 물리치료실, 원목실, 자원 봉사자실, 성당, 영안실이 겸비되어 있다. 이중 호스피스 병상은 13병상(6인실 2개, 1인실 1개)으로 운영하며 팀 구성원은 가정의(의무원장) 1명, 간호사 8명, 사회사업가 1명, 약사 1명, 사목자(신부) 1명, 자원 봉사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Team Approach를 하고 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처로 문의바람.



춘천 성골롬반의원 호스피스 10주년 기념

지난 4월 호스피스 개설 10주년을 맞은 춘천 성 골롬반 의원은 4월 7일 호스피스 특강과 4월 11일 바자회를 했다.

죽림동 성당 말딩 회관에서 있었던 4월 7일 특강에는 219명이 참석하여 김혜자 수녀님의 「호스피스의 필요성,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송명숙님의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의 역할」, 홍영선 교수님의 「호스피스와 완화 치료」에 대해 들었다.

강의 후에는 죽림동 성당에서 10주년 감사 미사를 드렸다.

성 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원에서 있었던 4월 11일 바자회는 춘천 시민, 봉사자, 후원회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바자회의 이익금 전액은 한 은인으로부터 기증 받은 거두리 소재의 6,700평의 대지에 세워질 호스피스 병원 건립에 쓰여질 예정이다.

10주년 행사를 위하여 여러 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하루 빨리 호스피스 병원이 건립되어 보다 많은 말기 환자들과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린다.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 활동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본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 봉사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신정 레지나 봉사자는 서울특별시 '99년도 상반기 자랑스런 시민상 미풍양속 부분을 수상했다.

박 봉사자는 지난 12년간 본원에서의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봉사와 홀트복지타운의 장애인을 위해 노력, 봉사를 해온 것이 높이 평가되어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6월 10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행해진 시상식에서 고 건 서울시장으로부터 상패와 메달을 수여하였고 부상으로 받은 금일봉 백만원을 호스피스 기금으로 전액을 기부하였다.

